

본문: 요한복음 1 장 19-28 절

제목: 참 빛을 증언하는 빛

1.

지난 주에 별 자리를 보려고 밤 9 시에 집 앞에 있는 언덕 위에서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앱을 통해 그 별에 갖다 대고나서 그 별이 목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성(Jupiter)은 혼자서 빛을 내지도 못하는데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 목성을 밝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목성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별임에도 빛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은 1 장 8 절에서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빛은 아니지만 참 빛을 증거해주고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은 참 빛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참 빛이 누구입니까? 참 빛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요한이 비추는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물어보게 합니다. “요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란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종교권력자란 종교를 통해 힘 자랑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종교가 벼슬도 아닌데 마치 벼슬이라도 가진 것처럼 종교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는 식민지의 문화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었어요. 로마에 큰 돈을 바치면 그들이 하는대로 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로마에 바친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혀서 뜯어 먹기에 바빴습니다.

누가복음 3 장 1 절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째 해에, 곧 본디오 빌리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걸까요?

먼저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2 대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 15 년이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쁜 리더들의 통치가 겹겹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티베리우스 밑에 로마 총독 빌리도,

그리고 그 밑에 분봉왕들이 유대 땅 주변을 다스렸어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¼ 왕, 쿼터 왕이라는 뜻이에요. 헬라말로 테트라아르케스란 말인데, 테트라는 4 라는 뜻이고 아르케스는 우두머리, 왕이라는 뜻이죠. 분봉왕은 왕과 총독 밑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혔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은 장인과 사위인데 이 집안에서 대제사장을 번갈아 가면서 해먹었죠. 실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을 산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통해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섯 겹으로 백성들의 삶을 괴롭히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지도자들로 겹겹히 둘러 쌓고 괴롭히니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두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이렇게 어두운 현실 가운데 빈 들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세레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세레 요한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예요. 그는 Zadoc 계열의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은 늙어서 아이를 가졌고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세레 요한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낼 때까지 빈들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눅 1:80).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나 야생에서 딴 꿀 같은 거였어요. 그는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다녔죠. 요한에게 두려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분봉왕도 두려워 하지 않았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의 죄를 공개적으로 탄핵하기도 했죠.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권했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레를 받으라고 명령을 했죠.

세레 요한이 활동했던 빈 들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세레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레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와는 다른 베다니입니다. '병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죠. 1947 년에 베다니와 같은 위도 상에 있는 쿨란이란 곳에서 동굴이 발견됩니다. 베드윈 소년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동굴들에서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성경을 베껴 놓은 두루마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굴 안에서 성경을 누가 베껴서 항아리에 넣어 놨을까 궁금하잖아요. 1 세기 사람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책에 보니 에세네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세레 요한이 아마도 쿨란과 같은 광야에서 지냈을 거라 추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쿨란 동굴 근처인 마케루스 요새에서 요한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왜 요한은 그곳 빈들에서 이런 회개 운동과 세례 운동을 펼친 것일까요? 왜냐면 그곳은 헤롯 안티파스가 머물던 곳과 가까웠고 종교지도자들의 비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두움을 그냥 앉아서 지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 왔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꺼내든 성경 말씀은 이사야 중에서도 40 장 말씀이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 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악한 여섯 명의 지도자들이 겹겹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답답한 시대 상황과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동되었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3.

세례 요한이 초청한 물세례는 구약성경에 따른 것이었어요. 에스겔서 36 장 25-26 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물을 뿌리고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옛 자아를 죽여 새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었어요. 옛 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식을 결혼식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종교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끄는 이 세례 운동을 가만히 지켜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들을 날카롭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대신 보내서 그의 정체를 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네가 누구길래 전 국민을 상대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냐? 네가 누구길래 전국민을 상대로 언약 갱신운동을 펼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뿐이었습니다. 첫째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입니다. 둘째 엘리야 이구요, 셋째는 신명기 18 장 15 절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한 명씩 이름을 대며 묻고 있습니다. 니가 메시아냐? 니가 엘리야냐? 니가 그 예언자냐 라는 세 번째 질문의 그 예언자는 모세를 말하는 것이구요. 세례 요한의 대답은 점점 더 확신에 찼고 우렁찼습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진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대도시의 하이웨이에 아무리 차가 막혀 있더라도 싸이렌 소리를 크게 울리며 엠블런스가 뒤에서 오면 모든 차들이 길을 열어주잖아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응급 상황이고 주님이 오셔야 하니까 똑바로 살아라는 다급한 호소였습니다.

4.

요한의 이 간절한 설교가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이 참 빛이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요한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요한은 좋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지도를 잘 받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좋은 자리 하나는 차지하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요한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위에 만들어갈 지에 그의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빈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깜깜한 동굴의 어둠 속에서 그는 빛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참 빛이 아니었지만 참 빛을 따라가다보니 그의 삶에 빛이 났던 겁니다.

우리가 꼭 요한처럼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빈들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겹겹이 슬픈 일들로 가득합니다. 나쁜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득에만 마음을 쏟고, 사람들을 불행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모두의 가장 큰 관심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셜 임꺽정을 보면 조광조라는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나옵니다. 조광조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들의 비리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37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이 조광조의 죽음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민중들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황해도 사람들은 진상품 요구가 너무 심해서 삶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들이 도적떼로 변했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백정 출신의 임꺽정이었습니다. 정말 암울한 시기에 조광조의 빛을 되새기며 밝은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 겁니다.

우리는 조광조보다 더 빛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기 위해 부름 받은 참 빛들입니다. 참 빛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음을 합하여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레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겠죠.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세레 요한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들어봅니다.

“바꾸어야 할 것은 너희의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 우리의 겉가죽이 아니라 삶을 바꾸라고 합니다. 옛 삶을 던져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작은 빛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작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시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참 빛을 증거하는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